
APEC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의 APEC 회의체 현황 검토

정보통신협력연구실 APII협력센터 연구원 안상은
(T. 570-4213, sangeuna@kisdi.re.kr)

1. 개 요

2003년부터 본격화된 APEC의 구조조정 논의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 처리 절차의 유연성을 증진해야할 필요성에 의해 APEC 정상들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고위관료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에게는 APEC 구조 개혁 제안을 2004년 제16차 APEC 각료회의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APEC 사무국에게는 APEC 구조, 정책 결정 과정, 업무 분야 및 활동 전반에 관한 평가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SOM 산하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는 경제기술협력 분야 회의체(Fora), 즉 실무그룹 및 태스크포스 등 회의체에 대한 현황 검토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기구들의 설립, 병합, 해체 등 구조조정에 관한 권고사항을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CE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내 회의체들은 이러한 APEC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현황 검토 작업을 지지하고, 회의체 간의 협력 및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¹⁾

APEC 회의체의 업무 현황 검토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련의 작업은 APEC 업무의 효율성 및 중복성 제거, 사용 가능한 자원의 경제적 이용 및 APEC 내 다양한 지역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목적이다. 위원회 의장은 SCE 회원들의 의견들을 고려하여 자료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이후 11월에 열리는 최종 고위관료회의(CSOM, Concluding SOM) 직전에 있을 비공식 SCE 회의에서 합의되는 결과를 담아 개정판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본고는 이를 위해 위원회가 현황 검토에 적용하는 기준 및 정보통신 관련 회의체의 현황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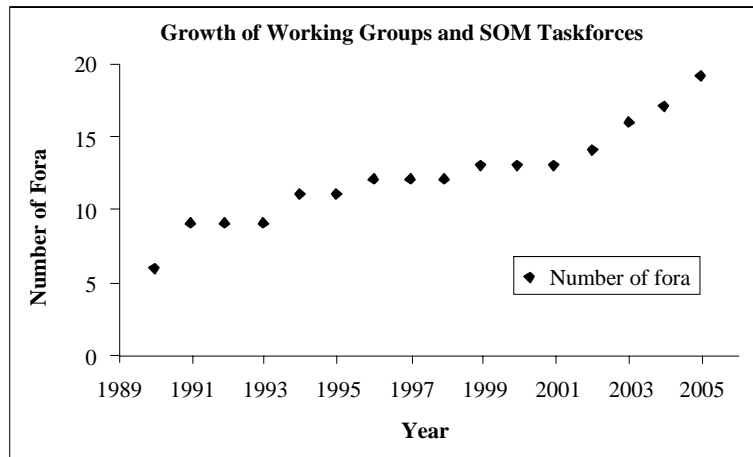
2. APEC 현황 문제: 회의체 증가

2000년에 채택한 APEC 회의체 설립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CTI/EC 이외의 회의체

1) 보다 자세한 APEC 구조개혁 논의에 대한 개괄은 안상은, 『정보통신정책』, 『APEC과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의 구조개혁 논의 동향』, 2006. 2. 참조.

는 1999년 13개에서 2006년 19개로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11개의 실무그룹과 8개의 SOM 산하 태스크포스와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OM 태스크포스는 단기간에 구체적인 목표 수행을 위해 설립되어 1년 이내 활동을 수행해야만 함에도 다수의 태스크포스가 2년으로 수행기간을 연장하면서 실제 규정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회의체가 효과적, 실무적인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리적인 이행가능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림 1] 실무그룹 및 SOM 산하 태스크포스 증가 현황



회의체 수의 증가는 이와 함께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관리 및 규제 비용 문제를 동반하여, APEC 사무국 재정과 프로젝트 수행 예산에 반영해야만 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APEC 내에서 우선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재원의 분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일 것이다.

3. APEC 회의체 업무 수행 현황 검토

위원회에 의한 실무그룹과 SOM 산하 태스크포스를 포함한 회의체 운영 현황 검토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회의체 업무 간에 중복성이 있는가? 실무그룹이나 태스크포스 업무가 다른 회의체에 포함되어 수행되는 편이 낮지는 않은가?
- 회의체 업무 중 수행 방법의 합리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태스크포스 업무가 수행에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가? 영구적으로 실무그룹 전환이 가능한 업무인가?
- 목표로 하는 능력 배양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투입-산출 대비 활동이 저조한 회의체가 있는가?
- 회의체가 APEC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기여하고 있는가?

위원회 소속 실무그룹과 태스크포스는 대체로 회의체 고유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대부분 회의체는 최근 APEC 차원의 구조조정 활동에 부응하여, 전략적 초점과 업무 수단 및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은 다음의 주요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질적·양적으로 평가된다.

가. 운영 규칙(Terms of Reference)

- 모든 회의체는 핵심 목표 및 절차를 담고 있는 운영규칙(TOR, Terms of Reference)을 채택하고 있으나, TOR에 나타난 추상적인 핵심 목표로 회의체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TOR에 담긴 목표 개념이 어떻게 명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수행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실무그룹과 태스크포스로 하여금 보다 목표지향적으로 성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고무하며 평가한다.

나. 감사(Review)

- 대개의 TOR이 감사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기적인 감사는 수행되고 있지 않다. 오직 세 개의 회의체만이 외부 감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수행 사업(Projects)

- 회의체 수행사업은 APEC 업무의 효율성과 기여도 측정의 핵심지표이다. APEC 사업은 정책 개발 및 규제개혁 논의, 경제기술협력 논의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활발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면서 경제기술협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03~2005년 사이에도 많은 회의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업 수행의 내용 및 성과는 회의체 평가에 주요하게 반영되고 있다.

라. 회의 참석자

- 회의 참석자 수는 회의체별로 다양하지만, 참석자 수가 꾸준히 유지된다는 것은 회의체의 내실있는 활동 및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된다.

4. 결 어

APEC 각 회의체는 위의 기준으로 실무그룹 및 SOM 태스크포스 활동을 평가하는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구조조정 작업이 탄력을 받은 2006년에는 실제로 중복되는 이슈/업무가 발견하여 개선을 위한 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회의체는 각각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몇몇 회의체의 경우 활동목표 및 내용을 담은 운영규칙이 다른 회의체와 중복되었거나 유사한 면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를 다루는 회의체인 정보통신실무그룹(TEL WG,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과 고위관리회의 산하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있어 위원회에 의해 목표의 유사성과 활동의 중복성이 지적되어 향후 이의 개선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 ECSG는 전자상거래실무그룹은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TEL WG 내의 비즈니스원활화운영그룹(BFSG)²⁾의 '전자상거래 촉진' 활동 내용과 유사하다.
- ECSG는 TEL WG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원활화를 위해 설립된 운영그룹으로, TEL WG은 광범위한 의제 구성과 높은 회의 참석률을 함께 달성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CSG를 TEL WG에 통합시켜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과 사업 수행을 IT 분야 전반과 결합시키므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의 방안이 유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2006년 4월, TEL WG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존재하지 않음. 2006년 11월 현재, APEC TEL WG은 자유화운영그룹(LSG, Liberalization Steering Group), ICT 개발 운영그룹(DSG, ICT Development Steering Group), 보안 및 번영운영그룹(PSG, Security and Prosperity Steer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